전자가상화폐 붐 속, 불교도 '하이-텍'

〈high-tech: 최첨단의〉

불자 프로그래머들, 전자가상화폐 '카르마 코인' 개발



전 세계에서 전자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유행한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카르마 코인'이 개발돼 눈길을 끈다. 사진출처=Wisdom Quarterly

新 불교 경제 구도 생성 위함

명상·불교 교육 통해 벌고

'로터스 네트워크'서 사용 가능

"가상화폐로 '종교 부패' 방지"

비트코인(bitcoin: P2P방식의 온라인 가상화폐)의 시가 총액이 84조원을 돌파하는 등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 가상화폐가 출시돼 눈길을 끈다.

불자 프로그래머들이 불교 가상화폐인 '카르마 코인'을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blockchain)을 통해 만들어냈다고 8월 10일 '라이언스로어'가 전했다. 이 '카르마 코인'은 첨단 불교 공동체 출범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로터스 네트워크' 등 특정 불교커뮤니티에서 활용 가능하다. 카르마 코인은 명상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불교를 가르치는 행위 등을 통해 벌 수 있다.

카르마 코인의 개발자들은 "이 가상화폐로 불자들이 돈을 정도(正道)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며 "또한 부처님 법 중 보시행이나 관용을 본받아 일반 통화를 사용할 때 물질주의에 속박되는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불자 경제' 구도를 만들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 카르마 코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카르마코인은 △불교 강의 시청 △기부 △로터스 네트워크 월정액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로터스 네트워크가 매달 유료로 독점 제공하는 양질의 불교 콘텐츠가 가장 인기를 끈다. 사용자들은 화폐로 사용되는 카르마 코인을 명상 등으로 금세 다시 벌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용한다.

전자 가상화폐에는 항상 안정성 문제가 뒤따른다. 개발자들은 이에 대해 "기본 화폐의 기능에 계약서 작성 등 안정성을 보장했다"며 "이 방식을 통해 전자 가상화폐 사기와 부작용등을 없앴다. 부작용 걱정은 덜고, 교리나 수행법을 쉽고 재밌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발자들은 이외에도 간단한 질문에 대답해주는 챗봇(chatbot)처럼 명상이나 교리에 대한 질문에 대답해주는 것을 구상 중이다. 또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착용하는 과학기술)의 개발로 뇌파 등 생체 정보를 파악해 VR헤드셋과 함께 실감나는 자연환경을 제공해주는 것도 차후 기술이 발전되면 시도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개발자들은 "아마 100년 내로 각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속속 가입할 것이다. 로터스 네트워크는 가능한 비전을 탐구하는 프로젝트"라고 말하며 시스템에 대한 확신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라이언스로어'는 "'불교가 기술을 쫓아가야 하는가'는 영원한 논제일 것이다. 하지만 결국 불자들은 부처님을 따라 항상 혁신을 선도해왔다. 불교는 항상 그 시기에서 중요한 것들을 해왔다"며 "다만 불교가 기술을 주도적으로 결합할지, 기술이 불교를 집어 삼킬지는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비트코인 사용이 확대되면 종교 부패도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평론가 안톤 두스(Anton Doos)가 "로터스 네트워크에서 비트코인의 사용 확대를 통해 종교적 부패를 대부분 없앨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세계 사찰 곳곳에 배치된 보시함에 시주를 하면 그 돈이 어디로 사용되는지 모른다. 하지만 불자들이 (불교)수업에 대한 강의료, 보시금 등을 모두 비트코인으로 지불하면 그 자금이 어디로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The memo'는 8월 29일 보도했다.

안톤 두스는 "신도들에게 투명한 재정 현황을 공개하기 위해 모든 종교기관은 기부금 등 경제 활동에서 비트코인을 활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 박진형 수습기자

독경·설법하는 만능 '로봇 승려'

일본 '엔딩산업전'에 장례 주관 승려 '페퍼' 등장

소프트뱅크사,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독경 비용 5만엔… 직업 목록 추가돼

독경 뿐 아니라 스스로 북을 두드리고 설법하는 '승려 로봇'이 개발돼 화제다. 로봇 '페퍼(Pepper)'는 로봇이 가질 수 있는 직업 목록에 추가됐다.

일본 다수 언론에 따르면 8월 23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임종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총망라한 '엔딩산업전 2017'에 장례를 주관하는 로봇 승려 '페퍼'(Pepper)가 등장했다.

검은색 승복을 입은 로봇 페퍼가 독경을 시작하자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일제히 사진을 찍었다. 독경을 마친 페퍼는 몸을 돌려 설법을 시작했다. "행복에 대한 책을 산다고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페퍼는 원하는 종파의 형식에 맞게 북을 두드리고 경전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장례음악 연주, 조문객 접대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전면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장례식을 촬영하고,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를 생중계로 전달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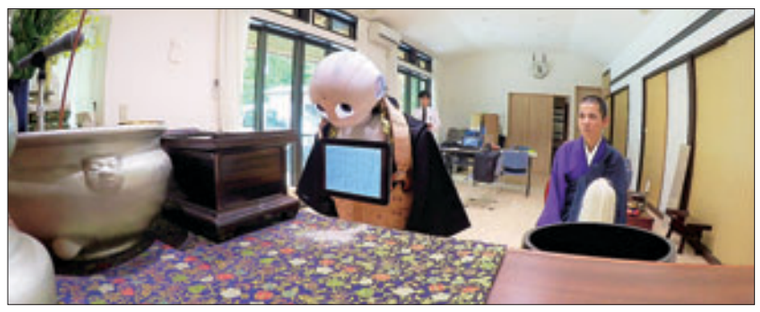
로봇 독경 비용은 5만 엔(한화 약 52만원)으로 스님이 직접 할 경우의 비용인 20만 엔 보다 훨씬 저렴하다.

페퍼는 일본의 소프트뱅크사가 만든 유명 로봇이다. 세계 최초의 감정인식 로봇으로도 불리는 페퍼는 상대방의 현재 기분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위로를 건네거나 웃음을 터뜨리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닛세이에코' 업체는 페퍼를 사들여 로봇 승려사업을 시작했다. 업체는 페퍼에게 장례식에 자주 활용되는 경전 내용 및 다양한 의식 절차를 입력했다.

닛세이에코의 야마구치 아쓰시 씨는 "상당수 일본 사찰이 주지가 고령화되면서 후계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찰의 여러 행사를 할 때 로봇이 부주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독경을 하고 스스로 북을 두드리고 설법을 하는 '승려 로봇'이 개발돼 화제다.
사진출처=Japantimes.com

'와이파이' 내리는 자비의 부처상

일본 삿포로 '부처님 언덕'의 불상

'BUDDHA' 명칭 와이파이 '화제'

일본 삿포로의 한 불상에서 와이파이가 나와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영국 디자인 전문 매체 '디젠' 등 외신은 삿포로의 '부처님 언덕(Hill of Buddha)'을 조명했다. 세계적 건축가 안다 다다오에 의해 2015년 건축된 부처님 언덕은 제작기간만 15년이 걸릴 만큼 그 규모와 디자인이 장엄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부처님 언덕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다. 공원처럼 아름답게 꾸며진 이 장소가 사실 공동묘지일 뿐 아니라, 한 가운데 불상에서 와이파이가 나와 놀라움을 선사하고 있는 것.



세계적 건축가 안다 다다오가 설계한 일본 북해도의 한 공원묘지에는 와이파이가 나오는 불상이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출처=디젠

안도는 "공동묘지 속 부처님의 모습으로 이목을 끄는 멋진 기도회장을 만들고자 했다. 이 공동묘지의 비탈에 숨겨져 부처님의 머리만 보이도록 설계했다"고 '도무스 매거진'을 통해 설명했다. 안도는 이어 "지금까지 불상은 그저 벌판에 홀로 서있어서 불안한 인상을 주었는데, 평화로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불상을 만들고 싶었다. 우리는 라벤더가 만개한 언덕으로 부처님의 머리까지 덮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말했다.

기도회장 안으로 들어가면 부처님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다. 둥글게 열려있는 천장으로 들어오는 빛은 부처님의 후광이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 '디젠'은 "세계적 거장 안도 다다오의 대표작으로 볼 수 있는 멋진 작품"이라며 "누구라도 이 앞에 서면 불상의 웅장함에 압도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불상 가까이 다가가면 와이파이가 잡힌다. 일반적으로 관광지나 명소의 명칭이 와이파이 이름으로 활용되지만, 이 공원의 와이파이 이름은 'BUDDHA'다. 공원 한편에는 불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와이파이 마크도 표현했다.

이처럼 공원 곳곳의 재치 있는 요소들이 공동묘지임을 잊게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아름 기자 · 박진형 수습기자

美 최대 캄보디아 불교 사찰

대형 연못 만들어 불상 모셔

미국에서 가장 큰 캄보디아 사찰 와트 뮤니소타람(Watt Munisotaram)이 새로운 연못과 대형 불상을 선보였다. 캄보디아계 미국인 7,000여명은 최근 와트 뮤니소타람의 연못 개원을 보기 위해 방문했다.

뮤니소타람 사원은 29주년 기념과 더불어 연못 및 불상의 설립을 축하하기 위해 행사를 열었다. 3일간 진행된 행사에는 전 세계의 140명의 스님들을 매혹하기에 충분했다.

약 3만평의 넓이의 연못에는 약 7m 높이의 불상이 세워졌다. 이 연못과 불상을 짓기까지 2년의 시간과 53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됐다.

뮤니소타람 사원 주지 소니 레이 스님은 "이것은 일생일대의 일이자 큰 축복"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캄보디아 사찰인 와트 뮤니소타람(Watt Munisotaram)이 새로운 연못과 대형 불상을 선보였다.
사진출처=twincities.com

미네소타 햄튼 지역에 16헥타르의 부지에 위치한 뮤니소타람 사원은 역동적인 색채와 독특한 동남아시아 건축양식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보스턴과 캘리포니아에 있는 캄보디아 공동체 사찰보다 커 미국에서 가장 큰 캄보디아 불교 사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보형 객원기자

반야용선

출원번호 30-2017-00239984

불교 장엄의식의 품격을 보장합니다

평생 사용 하실 수 있으며, 연(輦)만 분리하여 별도 의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극락세계로 가는 지극한 마음을 반야용선에 담아 부처님의 가피를 염원합니다.

불교의식에서 꼭 필요한 장엄의식구로서 종교적 경건함과 예술적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화려하고도 우아한 장식으로 인로왕 보살님의 안내와 지장보살님이 함께 동승하여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것입니다. 정교한 조각, 우아한 단청, 화려한 휘장으로 제작된 최고의 작품입니다.



반야용선 전체 – 높이 130㎝ × 길이 160㎝



■ 인로왕번 – 높이 129㎝



■ 용선모체 – 높이 63㎝ × 길이 160㎝



■ 지장보살 – 높이 60㎝ × 넓이 18㎝



■ 반야용선 앞면



■ 반야용선 후면



■ 연(輦) – 높이 62㎝ × 넓이 68㎝ (받침대 높이 43㎝)



■ 반야용선 받침대 – 높이 48㎝

■ 무 게 : 반야용선 전체무게 20kg
■ 금 액 : 450만원
■ 재 질 : 반야용선 – FRP / 연(輦) – 목재
■ 제조사 : 안스아트

• 주문 : 현불샵 02-2004-8214 / 010-7339-8688

(제작기간 : 입금 후 15일 / 전국 어디든 직접 배송하여 드립니다.)